

WEEKLY REPORT

#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84**

AUG 13 2021

발간년월 2021년 8월 13일(통권 제184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유지원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 주요 동향

- 로사툼, DP World와 북극항로 '컨' 운송 협정 체결
- 러시아, 북극 해저케이블 설치작업 시작
- 러시아, 2030년까지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추진

## 전문가 칼럼

- 한-우즈베키스탄 농업협력과 수출입 물류 시스템

## 주요 통계

- 2021년 6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액체화물)
- 2021년 5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 2021년 5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 주요 동향



# 로사톰, DP World와 북극항로 ‘컨’ 운송 협정 체결

그림. Rosatom-DP World 협력협정 체결 장면



자료: News2sea

## ■ DP World社와 러시아 로사톰이 북극항로를 따라 아시아와 유럽 간 물류를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협정을 체결했음<sup>a)</sup>

- 7월 23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본사를 둔 다국적 물류 및 항만 기업인 DP World社와 러시아 북극항로 인프라 운영사인 로사톰(Rosatom)이 북극항로를 통한 아시아와 유럽 지역 간 물류사업 개발을 위한 협력 협정을 체결했음
- 이 협력 협정에 따라 양측은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하여 북방통로(Northern Transit Corridor, NTC)를 따라 교통 및 물류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건설·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이외에도 양측은 쇄빙컨테이너선 선단을 설계하고, NTC 끝단에 있는 두 항만(무르만스크항과 블라디보스톡항)에서 쇄빙선과 일반 선박 간에 컨테이너 선적이 가능하도록 하여 쇄빙선

이 컨테이너 목적지까지 전 구간을 운항하지 않아도 되도록 항만 개발방안을 연구할 계획임

- DP World사 CEO는 “DP World사는 이미 러시아 국부펀드(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RDIF)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으며, NTC가 지속 가능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그 해결책을 찾는데 러시아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 로사톰은 북극항로를 수에즈 운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항로로 발전시키기 위해 투자하고 있음

- 8월 4일 로사톰 CEO는 푸틴 대통령과 만나 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계획을 승인해 줄 것을 촉구했음<sup>b)</sup>
- 그는 “국제 비즈니스 업계에서 많은 관심이 있으며, 컨테이너 운송이 실현 가능해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수준의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로사톰뿐만 아니라 러시아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경제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음
- 로사톰은 지난 몇 년간 북극항로에서의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된 계획을 추진해 왔으며, 자회사인 루나톰 카고는 무르만스크에 컨테이너 운송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새로운 항만을 지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로사톰 추정치에 따르면 러시아 북극해는 최소 450만 톤의 물동량이 창출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북방해상교통로(Northern Sea Transport Corridor) 사업의 하나로 허브 터미널 2곳을 건설하거나, 최대 30척의 쇄빙 컨테이너선을 건조할 수 있음
- 로사톰 CEO에 따르면, 북극항로 발전 속도는 예상됐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러시아가 쇄빙선 부족 현상을 겪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음
- 현재 로사톰은 2024년 이후와 2030년 이후의 쇄빙선 수요에 대한 분석을 새로 진행하고 있음

김지혜 전문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hkim85@kmi.re.kr/051-797-4767)

### 참고자료

- a) <https://www.nytimes.com/2021/07/23/world/europe/arctic-shipping-russia-dubai.html>(2021. 8.10. 검색)
- b) <https://www.arctictoday.com/rosatom-seeks-putins-approval-on-a-major-plan-for-arctic-container-shipping/>(2021.8.10. 검색)

# 러시아 북극 해저케이블 설치작업 시작

## ■ 러시아가 북극 해저케이블(폴라 익스프레스) 설치 작업을 시작했음<sup>a)</sup>

- 러시아 북극 지역의 해저에 케이블을 설치하는 ‘폴라 익스프레스(Polar Express)’ 사업은 탄화수소 자원이 풍부한 북극권 외딴 지역까지 고속 인터넷을 연결하는 국책 사업임
- 이 사업은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바렌츠해에 테리베르카 러시아 마을에서부터 극동지역에 블라디보스톡까지 약 12,650Km의 광케이블이 설치될 예정인데, 국영기업인 모르스비아츠푸트니크가 운영할 예정임
- 총 사업비는 650억 루블로 추정되며, 케이블은 중국산 광섬유와 러시아산 부품을 사용하여 무르만스크에서 제조됐음
- 모르스비아츠푸트니크 CEO에 따르면, 세계 통신 케이블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한 추가 케이블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해외투자를 받을 예정임
- 이는 사업을 유럽과 아시아로 확장하기 위해 공동투자 파트너십이 필요한 별도의 상업적 사업 부문으로, 현재 아시아, 유럽, 미국의 기업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음
- 폴라 익스프레스는 민간 주도에서 국가사업으로 변경되어 추진된 사업임

## ■ 민간주도 케이블 사업인 ‘악틱 커넥트(Arctic Connect)’ 사업은 중단

- 헬싱키와 도쿄를 연결하기 위해 러시아 텔레콤 운영사인 메가폰과 핀란드 인프라 운영사인 시니아가 참여한 10억 달러 규모의 민간주도 케이블 사업인 ‘악틱 커넥트(Arctic Connect)’ 사업은 지난 5월 중단됐음
- 메가폰은 국가 승인이 필요한 모든 부분을 승인받았지만, 지난 5월 사업의 구조와 경제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하지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와의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고, 기술적 어려움으로 사업 타당성이 없어지자 메가폰이 사업을 포기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며,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메가폰이 안보 우려 때문에 국가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고 견해도 나오고 있음

김지혜 전문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hkim85@kmi.re.kr/051-797-4767)

### 참고자료

a) <https://www.arctictoday.com/russia-starts-operation-to-lay-undersea-fiber-optic-cable-through-arctic/>(2021.8.10. 검색)

# 러시아, 2030년까지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추진

그림. 스콜코보혁신센터가 개발 중인 자율주행 자동차



자료: <https://sk.ru/news/bespilotnye-avtomobili-kto-razrabatyvaet-ih-v-rossii-i-chto-meshaet-razvitiyu-rynka/>

## ■ 운송비 15% 절감 및 속도는 25% 증가, 사고율 8% 감소 예상<sup>a)</sup>

- 러시아 교통부는 자율주행 트럭을 상용화할 경우, 운송비를 기존보다 15% 정도 줄일 수 있으며, 주행속도는 25% 증가해 교통소통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고율을 8% 감소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 ■ 러시아 교통부는 ‘자율주행 교통수단 인프라’ 연방프로젝트 추진<sup>a)</sup>

- 러시아 교통부는 현재 자율 주행 교통수단 인프라 확대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약 8,400억 루블임
- 현재 러시아 디지털 교통물류협회를 중심으로 교통부 워킹그룹이 추진 중인 ‘자율주행 물류 루트’ 프로젝트의 하나로 자율주행 트럭 상용화 사업도 추진 중임
- 2022년까지 M-11 네바(Neva) 고속도로(자율주행 가능 도로)에서 자율주행 트럭을 운전할 수 있도록 8월 중에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임
- 2021년 6월 네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러시아 교통부는 디지털 교통물류협회, KAMAZ(트럭 및 군용차량 제조기업), SberAvtoTekh, Globaltruck, X5 Group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림. 네바 프로젝트 관련 협약 체결 현장



자료: <https://ru-bezh.ru/gossektor/news/21/06/04/v-rossii-realizuyut-proekt-po-vnedreniyu-bespilotnyix-logisticheskikh-sistem>

김영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 참고자료

- a) <https://ru-bezh.ru/gossektor/news/21/08/10/na-8-mozhet-snizit-chislo-pogibshix-v-dtp-vn-edrenie-bespilotnogo>(2021.8.11. 검색)
- b) <https://rg.ru/2021/07/31/v-mintrase-rasskazali-o-plusah-poiavleniya-bespilotnyh-avtomobil-ej-na-dorogah.html>(2021.8.11. 검색)



## 한-우즈베키스탄 농업협력과 수출입 물류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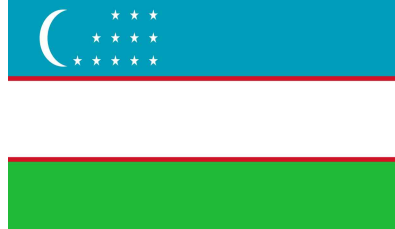
안 희 성

국립타슈켄트 농업대학교 명예교수  
우즈베키스탄 TURAN 명예학술원 회원

### 1. 우즈베키스탄 일반 현황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의 신 북방정책 대상국가인 동시에 옛 실크로드의 중심지이며, 중앙아시아의 전략적인 핵심 국가이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인구(3,456만)를 자랑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정식명칭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Republic of Uzbekistan)이고, 수도는 타슈켄트이며, 우즈베크어 및 러시아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우즈베키스탄 위치 및 국기



자료: 구글맵

우즈베키스탄 수도인 타슈켄트는 동서로는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 도시를 잇는 최단거리 항공로의 요충지이며, 남북으로는 인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항공망의 중심으로 구 소련연방국가(CIS) 중 가장 많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실크로드의 중심축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다. 아직도 도로변에 뽕나무가 많다는 점, 양잠산업이 주력산업이라는 점은 이곳이 옛 실크로드의 중심이었음을 실감하게 한다. 경제는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최근 들어 가스를 비롯한 광산, 공업 부문의 발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목화를 중심으로 한 섬유 및 식품 가공업이 농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 2. 한-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한국은 1991년 12월 우즈베키스탄을 국가로 승인 후, 1992년 1월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1993년 12월 상주대사관을 설치하였다. 1993년 6월과 1994년 6월 대통령의 교차 방문을 통하여 투자보장협정, 과학기술협정, 무역협정, 사증 발급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1994년 항공협정, 1998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과 양국 합작 가전제품 및 자동차공장이 건설되어 양국 간 경제교류와 기술협력이 증진되고 있다.

양국 간 무역은 독립 후 급속히 성장하여 교역량이 1992년 368만 달러에서 1993년 8,737만 달러, 1997년 1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한국은 러시아, 중국에 이어 우즈베키스탄의 세 번째 교역상대국이 되었다. 수출 품목은 주로 자동차 부품이나 품목이 점점 다양화하고 있다. 다만, 2019년 수출 규모는 23억 3,200만 달러, 수입 규모는 1,970만 달러로 무역수지가 23억 달러가 넘어 무역 불균형 문제가 존재한다.

표. 우즈베키스탄 수출입 현황

한, 우즈베키 연도별 수출입 동향 K-stat 품목별

품목 : MTI 4단위 , 국가 : 우즈베키스탄 , 년월 : 2020년 12월 , 화면 : 금액 , 당월/누계 : 누계 , 단위 : US\$, % , 정렬 : 수출금액												
연도	코드	품목명	2019년					2020년 (12월)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2019~	2020	총계	2,338,438,405	10.4	19,708,402	-10.1	2,318,730,003	1,704,233,516	-27.1	18,161,133	-7.9	1,686,072,383
			2017년					2018년				
2017~	2018	총계	1,180,445,089	27.2	18,116,879	-12.8	1,162,328,210	2,117,450,961	79.4	21,919,709	21.0	2,095,531,252
			2015년					2016년				
2015~	2016	총계	1,284,047,003	-36.8	16,137,750	-41.0	1,267,909,253	927,671,285	-27.8	20,777,199	28.7	906,894,086
1	7420	자동차부품	910,176,018	11.0	222,682	-51.7	909,953,336	820,981,975	-9.8	50,226	-77.4	820,931,749
2	7411	승용차	305,401,232	1.3	0	-100.0	305,401,232	136,561,704	-55.3	31,097	0.0	136,530,607
3	9990	기타 잡제품	164,551,910	177.5	0	0.0	164,551,910	98,034,796	-40.4	0	0.0	98,034,796
4	2140	합성수지	67,104,390	9.9	2,417	1,373.8	67,101,973	64,720,545	-3.6	65	-97.3	64,720,480
5	7111	원동기	43,751,570	3.8	15,196	-53.7	43,736,374	52,607,506	20.2	1,975	-87.0	52,605,531
6	7251	건설중장비	76,596,532	43.7	0	0.0	76,596,532	37,286,865	-51.3	0	0.0	37,286,865
7	5121	익자	29,742,161	14.2	1,010	-3.6	29,741,151	33,687,766	13.3	2,394	137.0	33,685,372
8	7112	펌프	67,522,518	61.2	2,904	516.6	67,519,614	33,098,534	-51.0	624	-78.5	33,097,910
9	8223	카스테레오	22,073,897	55.9	3,563	1,646.6	22,070,334	24,609,808	11.5	0	-100.0	24,609,808
10												

자료: kotra 타슈켄트 사무소

## 3. 한-우즈베키스탄 물류 현황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하여 취약한 경공업 산업 대신 농산물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 산하에 농산물 수출 창구인 GDF(Golden

Dried Fruits) 및 GFF(Golden Fresh Fruit)를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콜드체인, 냉장창고 저장, 유통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부하라, 수한다리아 지역에 농산물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고 대규모 첨단 온실을 건축하여 겨울철에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는 재배가 어려운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화훼를 재배하여 수출을 늘리고 있다. 매년 봄(5월), 가을(10월)에 무역전시관에서 각국의 무역회사들이 참여하는 전시회를 개최하여 무역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한국에 대해 농산물 체리, 메론, 포도 등 과채류 등의 수입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검역본부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요청으로 수입 사전 검사인 현지 체리 농가 포장에서 체리 수입을 위한 현지 검역을 병해충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농산물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최근 수한다리아, 부하라 농산물 수출 자유단지에 한국의 비닐하우스 건축업체(명성프라콘, 두리 등)들이 비닐하우스를 대규모로 건축하고 있다. 그 결과 비닐하우스 자재 수출 규모는 2016년 400만 달러에서 2019년에는 1억 6,700만 달러로 무려 40배 증가했다.

**표. 한국 비닐하우스 건축자재 우즈베키스탄 수출입 현황**

K-stat 품목별 (비닐하우스 건축자재)																	
품목 : HSK 6단위 , 시작코드 : 940690 , 국가 : 우즈베키스탄 , 년월 : 2020년 12월 , 화면 : 금액 , 당월/누계 : 누계 , 단위 : US\$, % , 정렬 : 수출금액																	
순번	코드	품목명	2017년			2018년 (12월)				2019년				2020년 (12월)			
			수출금액	수입 금액	수지	수출금액	수출증 감률	수입 금액	수지	수출금액	수출증 감률	수입 금액	수지	수출금액	수출증 감률	수입 금액	수지
		총계	13,572,014	0	13,572,014	60,045,052	342.4	0	60,045,052	167,078,385	178.3	0	167,078,385	101,648,054	-39.2	0	101,648,054
1	940690	기타	13,572,014	0	13,572,014	60,045,052	342.4	0	60,045,052	167,078,385	178.3	0	167,078,385	101,648,054	-39.2	0	101,648,054

자료: kotra 타슈켄트 사무소

우리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KOPIA 우즈베키스탄 센터는 우즈베키스탄 과수연구소와 고품질 포도 및 고품질 건포도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10년에 설립된 이 센터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은 포도를 생산 수출하고자 포도를 가공한 샴페인, 포도주, 고품질 건포도를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열악한 우즈베키스탄의 농산물 저장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타슈켄트 아사비 지역에 한국형 농산물 저온저장 유통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저온저장 창고를 건축하여 우즈베키스탄의 농산물 유통, 저장 사업 발전에 기여했다. 그 밖에도 수한다리아 지역에서 한국품종 애호박과 가지를 생산 및 건조(1차 가공)하여 한국에 수출하는 업체가 생기는 등 양국 간 농업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림. 부하라 농산물  
수출자유단지 개소식



그림. KOPIA 우즈베키스탄  
고품질 건포도 생산기술  
프로젝트



그림. 우즈베키스탄  
농산물저온저장 창고건축  
한국농어촌공사 프로젝트



#### 4. 한-우즈베키스탄 물류 발전 전망

한국~우즈베키스탄 물류 루트는 해운 중심의 복합운송 루트 3가지가 이용되고 있다.

- ① 부산항 및 인천항(한국)~상하이 및 칭다오(중국)~알마티(카작)~타슈켄트(우즈벡)
- ② 부산항(한국)~블라디보스톡(러시아)~알마티(카작)~타슈켄트(우즈벡)
- ③ 부산항(한국)~이란~카스피해(카작)~타슈켄트 (우즈벡)

출발부터 통관까지 35~45일 소요되며, 40ft 하나에 1만 달러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운송비를 지불하고 있다. 최근 해상운임 인상으로 물류비가 대폭 상승하고 있다. 한 우즈베키스탄 수출입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는 물동량이 압도적으로 많아 물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컨테이너 가격도 지불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반대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러시아, 중국 루트를 이용한 물류비용도 40ft 컨테이너당 최근 5,500~6,000 달러로 인상되었다.

해상운송은 수출업체들이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로 가장 저렴하게 활용 가능한 이란 루트를 기피하고 있어 가장 가까운 바다인 이란 항만도 거의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호레즘에서 석류 원액과 메론 가공품을 생산하여 냉장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한국에 수출하던 업체가 이란 항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도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한-우즈벡 운송비가 비싼 이유는 우즈베키스탄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이중 내륙국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상운송을 하기에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체리나 건포도와 같은 고가의 농산물의 경우, 대한항공 나보이 물류센터를 활용하여 운송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싼 항공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그 밖에도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농산물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한약재(감초 등)는 생산지인 카라칼팍 자치공화국에서 타슈켄트까지 1,200km이므로 물류 집적지인 타슈켄트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그림. 수한다리아  
한국비닐건축업체 방문 현장



그림. 우즈베크 농림부장관 한국  
한약재 생산 한국수출업체 방문



그림. 한국 수출용 애호박



농산물은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며 변질, 부패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중 내륙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농산물 수출입은 최근 농산물 가공, 건조 등 고부가가치화하여 어려움을 해결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농산물 수출, 저장유통, 가공업체가 설립되고 있으므로 앞서 자동차 분야가 한-우즈베키스탄 물류산업을 발전시켰듯이 농산물 물류도 더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자료

표. 우즈베크 농업분야 SWOT 분석

S	W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치적인 안정 (신 정부 출범)</li> <li>2. 저렴하고 풍부한 청장년 인력</li> <li>3. 잠재력 큰 시장(인구 경지면적)</li> <li>4. 지속적인 경제성장</li> <li>5. 한국과 전략적 유대관계</li> <li>6. 정부의 강력한 수출농업 육성정책</li> <li>7. 정부의 농산물 생산 적극 지원</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낮은 기술, 생산성</li> <li>2. 낮은 교육수준</li> <li>3. 낮은 인프라 시설</li> <li>4. 공공부분 서비스</li> <li>5. 만성적 물 부족</li> <li>6. 낮은 도시화율 (거주이전 풀림)</li> <li>7. 높은 인플레이션</li> </ol>
O	T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 강력한 수출농업육성정책</li> <li>2. 광. 공업 분야의 낙후</li> <li>3. 한국업체 적극적 유치</li> <li>4. 성장잠재력 큰 시장(인구, 지역적)</li> <li>5. 낮은 농산물 가격(수출경쟁력)</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과실 송금 불안정(해소)</li> <li>2. 사업승인 경직성(승인기간, 차관)</li> <li>3. 인프라, 공공부분 불안 (전기)</li> <li>4. 공공부분 서비스 불안정</li> <li>5. 높은 환율 변동율</li> </ol>



## 주요 통계



표. 2021년 6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화물 및 액체화물)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20/2021 증감율
극동지역	13.03 (+9.3%)**	6.25 (-5.4%)	19.28	+3.9%
북극해	2.42 (+0.7%)	5.16 (-2.7%)	7.58	-1.7%
발트해	10.18 (+6.4%)	11.02 (-10.7%)	21.2	-3.4%
아조프-흑해	9.64 (+11.3%)	13.24 (-3.6%)	22.88	+2.2%
카스피해	0.2 (-30.2%)	0.41 (+1.4%)	0.61	-12.2%
합계	35.43 (+8.0%)	36.12 (-6.0%)	71.55	+0.3%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울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초카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 주: 누적 물동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 참고자료

a) [https://www.alta.ru/logistics\\_news/81902/\(2021.7.14. 검색\)](https://www.alta.ru/logistics_news/81902/(2021.7.14. 검색))

b) [https://portnews.ru/news/315503/\(2021.7.14. 검색\)](https://portnews.ru/news/315503/(2021.7.14. 검색))

표. 2021년 5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01-24	식료품 및 원자재	272,874.7	80,039.2	220.6	38.8	273,095.3	80,077.9
25-27	광물 제품	1,243,473.0	33,684.1	347.6	0	1,243,820.7	33,684.1
27	연료 및 에너지 제품	1,104,647.2	33,139.7	339.7	0	1,104,986.9	33,139.7
28-40	생고무 화학 제품	3,970.9	90,992.8	324.9	21.7	4,295.8	91,014.5
41-43	가죽원료모 피 제품	21.3	1,727.1	0	1.5	21.3	1,728.6
44-49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96,348.1	9,165.0	265.5	0	96,613.7	9,165.0
50-67	섬유·섬유제 품 및 신발	247.7	27,324.9	0.3	37.5	248.1	27,362.5
72-83	금속 및 금속 제품	52,071.0	82,510.9	97.0	929.2	52,168	83,440.1
84-90	기계류	73,280.6	421,700.6	116.7	50.1	73,397.3	421,840.7
68-71, 91-97	기타	201,712.5	54,468.0	769.6	80.7	202,482.3	54,548.7
	합계	1,944,000.0	801,702.4	2,142.3	1,159.5	1,946,142.2	802,861.9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7.14. 검색)

표. 2021년 5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단위: 톤,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0302	냉장수산물	190	218.7	-	-	-	-	-	-	190	218.7	-	-
0303	냉동수산물	73,852.9	99,954.5	1,698	5,144.4	0	0.0	-	-	73,853.0	99,954.5	1,698	5,144.4
03031	연어	0	7.2	-	-	0	0.0	-	-	0.0	7.2	-	-
030331	광어	257	855.4	-	-	-	-	-	-	257	855.4	-	-
030332	가자미	156	171.9	-	-	-	-	-	-	156	171.9	-	-
030339	기타 넙치류	788	648.8	-	-	-	-	-	-	788	648.8	-	-
030351	청어	5,139	3,472.4	-	-	0	0.0	-	-	5,139	3,472.4	-	-
030363	대구	5,379	12,000.8	-	-	-	-	-	-	5,379	12,000.8	-	-
03036 70000	명태	55,038	58,037.4	-	-	0	0.0	-	-	55,038	58,037.4	-	-
03038 93	농어	13	38.1	-	-	-	-	-	-	13	38.1	-	-
030391	알류	4,536	22,621.9	-	-	0	0.0	-	-	4,536.5	22,622	-	-
030399	지느러미, 머리, 꼬리 및 기타 식용 어패류	296	402.6	-	-	-	-	-	-	296	402.6	-	-
0304	생선 필레	7,182	21,605.6	82	420.9	0	0.0	-	-	7,182	21,605.6	82	420.9

0305	훈제 생선, 생선 가루	0	0.1	104	669.4	-	-	-	-	0.0	0.1	104	669.4
0306	갑각류	5,599	134,574.5	57	389.2	-	-	-	-	5,599	134,574.5	57	389.2
030614, 030633, 030693	게	5,145	130,487.3	-	-	-	-	-	-	5,145.0	130,487.3	-	-
0307	조개류	498	1,254	-	-	0	0.0	-	-	499	1,254	-	-
03072	가리비	201	432.6	-	-	-	-	-	-	201	432.6	-	-
03074, 03075	오징어 및 문어	119	355.3	61	300.6	0	0.0	-	-	119	355.3	61	300.6
0308	수생 무척추 동물*	747	2,437.3	-	-	-	-	-	-	747	2,437.3	-	-
03081	해삼	16	43.1	-	-	-	-	-	-	16	43.1	-	-
03082	성게	731	2,392.0	-	-	-	-	-	-	731.0	2,392.0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7.14. 검색)